

방송 · 산업 · 교육분야에 영상 · 음향 · 보안 · 정보통신 등의
종합멀티미디어 기자재의 제조 및 유통 · 설비 전문 기업



[주]대경바스컴
DAIKYUNG VASCOM Co., LTD.

당사는 전문 음향시스템, 유 · 무선 마이크, 앰프, 믹서,
회의용시스템, 동시통역시스템, 각종 영상 프로세서기기, DVR, CCTV 등의
음향과 영상 및 보안 관련기기의 생산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
세계 유명브랜드의 한국대리점 및 로컬대리점으로서
유통, 컨설팅, 설비 등의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.

iLive와 함께 한 Extreme 내한 공연



'More than words'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펑키 메탈 그룹 Extreme 공연에 iLive 믹싱 콘솔이 그 진가를 발휘했다.

1985년 결성된 Extreme은 록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명반 *Pronograffiti*를 비롯해 4장의 앨범을 발표했으며, 1996년에 해산하였다가 2004년 재결성되어 올해 새 음반 (*Saudades de Rock*)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순회공연의 일환으로 한국에 온 것이다.

당초 국내에서 준비한 믹싱 콘솔은 iLive가 아니었으나, iLive가 아니면 공연하기 어렵다는 Extreme의 강력한 요청이 영국 Allen&Heath 본사에 전달되었고, 국내 배급처인 (주)대경바스컴에서 iLive-144(FOH) + iLive-80(Monitor)과 기술 인력을 지원하였다.

Extreme 하우스 엔지니어인 조 브라운은 "iLive는 아날로그 콘솔 사용자들도 금방 친숙해질 수 있을 만큼 사용하기 쉽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. 그리고 차가운 음색을 내는 다른 디지털 콘솔과는 다르게 따뜻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좋다. 우리는 이번 순회공연 시작 때부터 콘솔은 현지에서 조달하고 메모리 스틱 하나만 들고 다녔다. 이 보다 편할 수가 없죠"라며 iLive 콘솔을 극찬했다.

관중들의 열광적인 환영과 환호에 감동한 게리 세론(보컬)과 누노 벤테코드(기타)는 "이렇게 뜨겁게 환영해주고 음악을 즐길 줄 아는 한국 팬들을 두고 지난 19년 동안 한국 공연을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. 조만간 다시 한국 공연을 준비하겠다"는 말로 "We will be back soon"을 외치며 공연을 마무리했다.

